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9호 [루게 제24987호] 주제10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  
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승리 62돐  
에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  
전쟁참전렬사묘  
를 찾으시고 인  
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박영식 동지, 리  
영길 동지, 김원  
홍 동지, 서홍찬  
동지, 조남진 동  
지, 량철성 동지



명의로 된 화환  
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참가자들과  
함께 인민군  
렬사들을 추모  
하여 묵상하시  
였다.  
이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  
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  
가 주악되는 속  
에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  
공 및 반항공  
군, 로농적위군  
명에 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참가자들과

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과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인민군렬사추모람양에는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를 돌아보시였다.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  
에 도착하시  
였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  
공 및 반항공  
군, 로농적위  
군명에 위병대  
대장이 조국  
해방전쟁참  
전렬사들을  
추모하여 들  
어 총구멍을  
내리였다.  
애국가의 장  
중한 주악에  
이어 화환진정  
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극이 울리는가  
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새 세대들이 1950년대의 조  
국수호정신을 영웅조선의 력사  
와 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사상  
정신적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  
설의 승리를 위한 총결사전에  
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  
켜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  
였다.  
참가자들은 불세출의 선군명장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  
해방전쟁참전자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우  
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  
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2돐 경축 공훈 국가 합창단 공연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2돐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이 2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백두의 천출명장들을 높이 모시어 반제혁명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전승을 빛내여온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인민군군인들, 세대 청년학생들과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공연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 무관부부들, 외국순방들이 초대되었다.

연극 《우리의 7.27》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 《조국보위의 노래》, 남성합창과 관현악 《문경고개》, 남성독창과 무반주합창 《진호숙의 나의 노래》, 남성합창 《조국의 바다처럼 영생하리라》, 관현악과 노래연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관현악과 남성합창 《7.27행진곡》 등의 곡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부쌍천 전략전술, 탁월한 명군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원수적멸의 전진항전으로 불러일으키시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지자 장내는 백두의 천출명장에 대한 열화같은 흥모심으로 뜨겁게 끓어올랐다.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진기한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수적, 군사기술적 우세를 통째로 깃부서버린 전하의 나날들을 격정속에 돌이켜보았다.

영원히 잊지 않을 력사의 상처로 된 가뭇처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며 위대한것인가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새 세대들에게 베풀어 사무치게 새겨주는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전쟁의 3년간》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었다.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전격적 돌격로를 열어제끼고 미제에게 수직시러 온 대참패를 안긴 인민군용사들의 자랑찬 위훈을 형상한 남성중창과 경음악 《근위부대자랑가》와 우리 인민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보여주는 녀성2중창과 남성중창 《샘물에서》, 녀성민요독창과 남성합창 《뽕따러 가세》 등의 종목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방사로의 일제사격과 같은 힘있는 노래 조성은 당과 수령의 명도따라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창조하고 빛내여온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고귀한 넋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길에 우리 조국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의 명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지니고 백두산대국의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반영한 남성합창 《김정은장군찬가》, 《영광의 사열행진》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선군혁명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항일혁명선렬들과 전하의 영웅들처럼 준엄한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신념의 불은기를 높이 들고 땅을 따라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의지가 맥박치는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선념 버리지

말자》, 《가리라 백두산으로》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전진길에 승리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조국경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공연은 종곡 《우리의 7.27》로 끝났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참찬을 받았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2돐 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주제혁명업적을 기어이 완성해나갈 원만근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명도로 주제

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승을 창조하고 빛내여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주제의 선군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단수대학장학생들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꽃잎은 전승절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명도로 주제

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승을 창조하고 빛내여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주제의 선군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단수대학장학생들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명도로 주제

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승을 창조하고 빛내여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주제의 선군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단수대학장학생들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명도로 주제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명도로 주제

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승을 창조하고 빛내여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주제의 선군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단수대학장학생들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꽃잎은 전승절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명도로 주제

##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에 화환 진정

【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2돐을 맞으며 27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려사릉들과 려사묘에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에 진정되었다.

이러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명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려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들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명도밑에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수심성상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영웅조선의 전승신화와 백두의 전승을 창조하고 빛내이는데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려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참가자들은 려사릉들과 려사묘를 돌아보았다.

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승을 창조하고 빛내여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주제의 선군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단수대학장학생들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명도로 주제

##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경축연회 진행

【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전승절을 맞으며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경축연회가 27일 인민문화궁전, 유류관, 청류관, 4.25리판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최영립동지, 김원홍동지, 박법기동지, 김형태동지, 조연준동지, 태종수동지와 당, 무력기관, 관계부문의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연회에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해동지가 연설했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은총속에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로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승을 창조하고 빛내여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주제의 선군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단수대학장학생들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꽃잎은 전승절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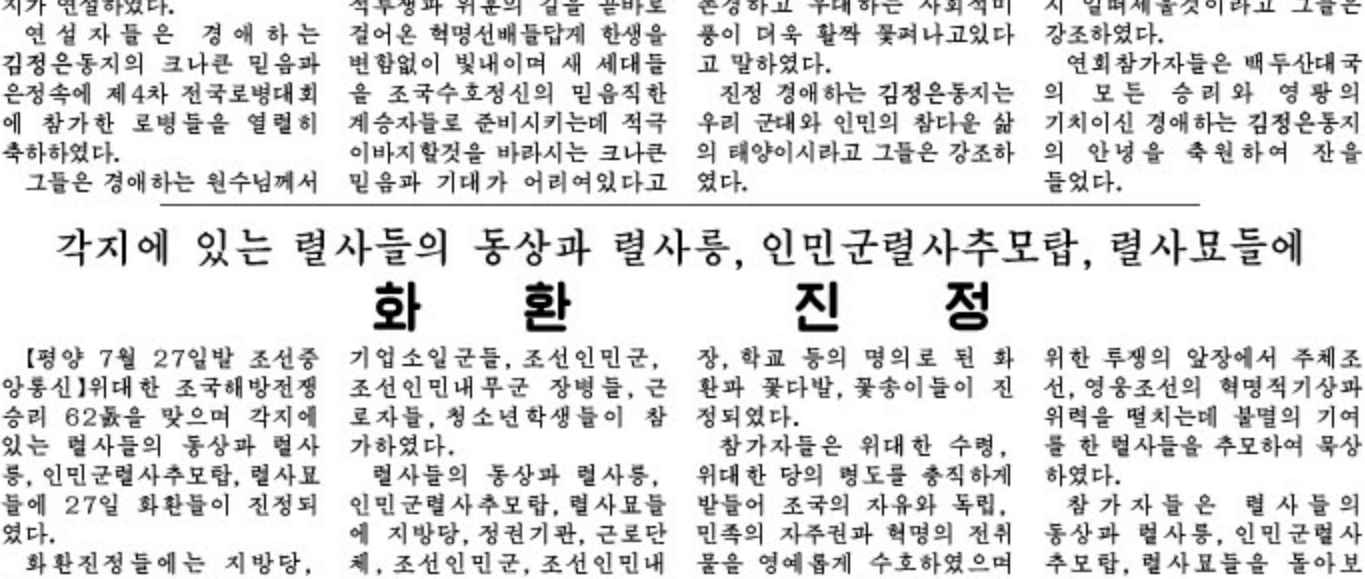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명도로 주제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 진정



# 백두산대국의 전승의 력사 최후승리의 7.27로 빛내이리

## 다함없는 경모의 정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기상과 영예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친 승리의 7.27!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침략자 미제를 멸망의 내리막길에 몰아넣은 공적은 승리의 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있었다.

조국해방과 당상전 70돐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고 그이께서 하신 뜻깊은 축하연설까지 받아안은 전쟁로병들의 가슴마다에도, 영원한 승리의 긍지를 새겨가는 인민들과 새 세대들의 얼굴마다에도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고 빛내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헌정은 그리움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더불어 뜨겁게 굽이쳐오르는 백두산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흥묘의 정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더욱 새차게 끓어번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혁명의 로새대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군장병들과 로동계급, 농민근로자들, 지식인들과 우리 당의 품속에서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는 청소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넘치는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표현 할수 있으랴.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헌정은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아 절세위인들의 고이온 언덕에 눈굽을 적시며 태양의 품에 안긴 팔없는 행복으로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불세출의 전설적영웅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령할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며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정신과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헌정은 그리움을 안고 아침부터 인민군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물결이 광장으로 풀없이 흐르고 있었다.

대원수님이 승엄하게 부각되어있는 돌대문을 지나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태양상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세상을 놀래운 기적적인 승리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영웅군대, 영웅인민으로 내세워주신 백전백승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회색의 명장을 높이 모신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어려있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모두를 오늘날 한몸에 안아주시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경건히 인사드리는 귀밀미러린 로인들과 인민군관들, 로동자,



농민,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가 세계《최강》을 뽐내던 가장 포악한 미제를 서산략의 운명에 몰아넣으시고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를수록 62년전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전승광장의 언덕에 높이 서서 영웅적인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손을 답례하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이 안겨오고 전승광장에 메아리치던 우렁찬 만세의 환희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광장에서 우리와 만난 서성구역상선동 62인민반에서 사는 고영숙녀성을 비롯한 로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전승의 축포가 머저오르던 력사의 마련것입니다.」

그날이 안겨드는데 그들의 눈가에는 추억의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천제적인 군사적지략과 무비의 담백과 배짱,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안이 온 력사의 기적이었다.

싸우는 전사들을 찾아 불비쏟아지는 멀고먼 전진길을 헤치시며 백승의 지략을 펼쳐주시었고 온 나라 전선과 후방을 끊임없이 찾았으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이 안겨오고 전승광장에 메아리치던 우렁찬 만세의 환희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광장에서 우리와 만난 서성구역상선동 62인민반에서 사는 고영숙녀성을 비롯한 로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고지들은 또 열매였는가, 승리는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전진길에서 세계전쟁사가 일제기 알지 못하는 비범한 전법들과 전술들이 마련되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영웅으로 자라났다.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과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에서 군대와 인민은 승리를 확신했고 멀적의 투지로 가슴 불태웠다.

대원수님전투머 서울해방작전, 주문전앞바다에서의 빛나는 승리, 관문점담판을 비롯하여 평범한 전진전술과 전법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분쇄해 버리신 백두산위인의 탁월한 령군술은 또 세상사람들을 얼마나

경탄시켰던가, 승리는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승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만이 누릴수 있는 행운이고 영광임을 력사하는 사람들속에는 동태원구역 세살림동 4인민반에서 사는 리춘화로인도 있었다.

진정 한세대에 두 세국자들의 따스하신 우리 수령님의 업적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신념을 천한 가슴속에 더욱 역세게 새겨주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이다.

우리과 만난 체육성에서 일하는 김영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느라 우리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도 승리할 조국의 배일을 확실히하신 수령님의 그날의 유성이

막걸의 시초를 열어놓을수 있었던것이다.》

하늘이 낸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어 이룩된 자랑스런 전승의 력사에 대하여 새 세대들에게 감동깊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속에는 동태원구역 세살림동 4인민반에서 사는 리춘화로인도 있었다.

진정 한세대에 두 세국자들의 따스하신 우리 수령님의 업적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신념을 천한 가슴속에 더욱 역세게 새겨주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이다.

우리과 만난 체육성에서 일하는 김영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느라 우리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도 승리할 조국의 배일을 확실히하신 수령님의 그날의 유성이

들려오는듯싶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존엄한 전희의 나날 신평향녀성을 비롯한 학원의 10명 당원들의 목소리, 장산리 녀성들의 풍금소리, 일사적인 전략적후퇴의 길에서 만나신 법동농민의 신념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미제를 때려부시는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말씀이 귀전에 메아리치는듯싶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사람들로 차고넘쳐났다.

광장을 찾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조선인민군 군관 박성복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전승절에 병사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으니 위대한 전승업적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 군인들은 앞으로 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따라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역세게 들어쥐고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백승의 력사를 더욱 빛내어나갈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뿐이라. 이 땅에 풀없이 울려퍼지는 천만 군민의 그 힘찬 맹세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백전백승의 빛나는 전통과 든든한 토대가 있고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영원한 승리의 7.27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승리할것이라는 신념을 천한 가슴속에 더욱 역세게 새겨주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이다.

우리과 만난 체육성에서 일하는 김영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느라 우리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도 승리할 조국의 배일을 확실히하신 수령님의 그날의 유성이



### 전승사와 더불어 길이 전할 절세위인의 숭고한 민족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존엄한 전희의 불길속에서도 숭고한 민족애의 력사를 수놓으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려는 가렬한 전희의 나날에 남들의 풍모를 위하여 인민적 사색들과 수많은 조지들을 실시하도록 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었다.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애의 숭고한 화폭들은 가장 열렬한 인민사랑의 힘으로 영웅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기적을 안아오신 천출명장의 불멸의 위인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가장 숭고한 인간애, 인민애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인간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 조지명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남북동포들을 생각

하시며 해방된 땅에서 그들이 참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며 반공적으로 넘어간 인민군용사들이 서울해방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총공격전지를 차지하였던 주체39(1950)년 6월 27일, 전투로 하여 피해를 입게 될 인민들이 못내 걱정되시여 승리가 약속된 작전을 옹근 하루밤이나 미루신 단호한 결심은 절세위인께서 지니신 고결한 인간애, 동포애를 더욱 절감하게 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하신 결문《서울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데 대하여》에서 서울시에 지체없이 인민위원회회를 수립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정시키는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해주시었다.

또한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도록 하시어 남반부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주체39(1950)년 7월 4일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었

으며 편이로 로동법령, 남반부 동원법령 등이 발표되어 외세와 내국인들을 분정적 토지소유제도와 착취관계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는 사회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주체39(1950)년 7월 중순 불비쏟아지는 전진길을 헤치고 해방의 환희로 들끓는 서울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민주개혁실시를 위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시는 나날에 이 지어 인민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절세위인의 풀없는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해방된 남반부지역 인민들의 생활은 급속히 안정되어갔으며 전쟁의 어려움 환경속에서도 제반 민주개혁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어 남조선인민들은 전쟁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수안보를 찾으시어 평범한 농가의 장독도 허물없이 열여보시고 추장맞까지 보아주시며 육신의 정을 부어주시는 수령님께서는 의정부의 농촌에 가시어서는 자신께서는 언제 한번 남녘동포들을 잊은적이 없드시며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통하여 수령님의 명도를 받아야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꽃피게 된다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남반부 농민들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서울에서 발간되던 《독립신문》은 어느 하루에만도 토지개혁실시로 평의 주인이 된 농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3 000여명의 감사편지를 올린데 대한 글을 실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는 함으로 가슴뜨거웠듯이 였다.

주체39(1950)년 8월 내각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신 수령님께서는 서울시민들의 열나루문제를 회의의정문으로 제기하시고 서울시민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긴 오늘날까지 이전과 같이 고통을 당하게 할수는 없었다고, 열나루문제로 예견성있게 풀어주시어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미제가 내놓은 저지른 죄행을 감추어 보려고 아무리 교활하게 늘어내도 조선땅에 남긴 피의 흔적을 절대로 지울수 없다고 하시면서는 피로써 갈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 결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현지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

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신천박물관을 일러는 계급교양대학과 같이 새로운 금강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박물관의 일꾼들,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로씨야신문들인 《폼페르란트》, 《아르주멘트 이 라피》, 《라프스톤》, 《도이칠란트》, 《데메아톤》, 미국의 UPI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대생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투》와 브라질주제사상연구센터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 시, 군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소식을, 민주공화국주제사상연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칠란트제언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이 소식과 함께 김정은동지께서관차원합 기념소를 현지지도하시었고 철도 현대화의 불길을 지퍼주시는 소식을 게재하였다.

네덜란드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3차 대외회의에 참가하시어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실었다.

이란, 브라질, 우루과이, 민주공화국, 도이칠란트, 네덜란드의 출판 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물들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27일에 전승되었다. 본사기자



# 영웅조선의 최후승리를 부르는 전승의 축포성

## 전승절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27일 저녁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 언덕과 대동강변, 반월도, 옥류교를 비롯한 시내의 곳곳은 선군조선의 장쾌한 승리의 축포가 터져오를 시각을 기다리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군중들의 가슴마다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평도말에 미세를 때려부시고 전승의 축포를 쏘아 올린 금지높은 승리의 명절을 맞이한 크나큰 기쁨으로 설레이고 있었다. 23시 《위대한 전승의 명절》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경축의 축포가 일제히 터져오르며 수도의 밤하늘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7.27을 경축하여 장공높이

솟구쳐오른 형형색색의 축포탄들이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아름다운 일만경을 펼치고 승리의 고지에서 인민군용사들이 웨치던 만세의 합성인양 장엄한 축포성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절에 빛나는 전승절을 후세에 가서도 영원히 정미의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로, 제2의 해방의 날로 뜻깊게 경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불꽃보라들이 흩어져내려 천하를 천색만색으로 찬란히 물들이고 무수한 축포들이 앞을 다투어 올라 선군조선의 하늘을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군위부대용사들의 불멸의 위훈을 격조높이 구가한 《군위부대자랑가》의 경쾌한 노래선율

이 울리는 속에 각양각색의 축포탄들은 황홀한 불의 야경을 연속 펼치었다. 천태단상의 불야경은 그대로 미세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침략을 쳐물리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현명하게 명도하시어 영웅조선의 배승의 기상과 존엄을 세상에 떨쳐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드리는 가장 뜨거운 감사였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장중한 노래선율속에 터져오르는 환희의 축포를 바라보며 군중들은 제국주의자들과 피어린 판가리싸움과 준엄한 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승리,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 강적들을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십시오 강철의 명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오늘날 세상사람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신뢰를 받고 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 김일성대원수님. 반란단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식민주의민족의 설움만을 강요당해야 했던것이 바로 한세기 전 우리 민족의 모순이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대한 주체조선의 영웅적인민으로 자랑될수 있게 되었다. 장쾌한 축포성이 끊임없이 터져오르고 오색명동한 불꽃이 뿌려지는 황홀경을 경탄속에 바라보는 전쟁로병들의 얼굴마디에

는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미세를 서산락일의 구령령에 처박고 빛나는 전승을 안아 온 승리의 금지가 한껏 어려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이고 수령님께서 계시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안고 조국수호전에 떨쳐나 칠촌도 생명도 아깝없이 바쳐싸운 영웅전사들에게 드리는 인민의 뜨거운 축복과 축하의 인사인양 축포탄들이 연이어 솟구쳐올랐다. 환희에 넘친 군중들의 가슴은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의 존엄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총포성에는 반제반미대결전을 변전선승으로 이끌어 오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새차게 끓어넘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뜻으로 이 땅위에 조국번영의 억년기쁨을 다져주시어

전승의 7.27을 영원한 승리의 7.27로 이어갈 담보를 마련해 주신 백두의 선군명장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애국헌신의 로고를 되새기며 군중들은 축포의 화광으로 붉게 물든 수도의 하늘가를 뜨거운 격정속에 바라보았다. 우리 식 축포의 위력과 조형화, 예술화수준을 보여주는 축포탄들이 전주알같은 불꽃들을 하늘가에 수놓고 무수한 불꽃기둥이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화폭을 연속 펼쳐지자 군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며 열광적인 환호를 울리었다. 평양의 불보라, 오색천연한 빛발들이 터져오르는 경축의 광장에서 군중들은 조국을 괴로워 지켜낸 전쟁로병들을 혁명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마음속으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

를 올리었다. 군중들은 또 한분의 회색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조선의 힘》을 비롯한 노래들에 맞추어 발사되는 각양각색의 축포들로 하여 수도의 밤하늘가는 불꽃바다를 이루고 경축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전회의 불꽃을 헤쳐온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승리의 자의 회일단친 불보라의 장쾌한 광경을 바라보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반제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열의가 끓어올랐다. 그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불라는 결의들을 가다듬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7.27로 이어나갈 찬란심장의 힘찬 박동이런듯 《승리는 대를 이어》, 《혁명무력은 원수님 평도만 받든다》의 노래선율이 장엄한 축포성과 더불어 울림이 메아리쳐갔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경축하여 진행된 축포 발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명도업적을 추추는데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 전승절을 맞으며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 각지에서 진행

【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 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7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개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우리 민족의 제2의 해방의 날이며 반제투쟁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력사적승리의 날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흥성거리고 있었다. 환희가 차넘치는 무도회장에 《7.27행진곡》이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특장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무쌍한 지략, 특출한 명군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안고 아름다운 춤바다를 펼치었다. 선군의 기치높이 드시고 전대미문의 반제반미대결전을 변전선승으로 이끄시었으며 이 땅위에 강력한 핵억제력을 지닌 세계적인 군사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를 가슴깊이 되새기며 참가자들은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불빛입니다 해빛입니다》를 비롯한 노래선율에 맞추어 춤물동을 이어나갔다. 《전선행렬차》, 《달려가자 미세로》 등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년대와 새기를 이어 백승만을 펼쳐가는 선군조선의 청년전위들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홀라라》, 《황금산타령》, 《평양의 사계절》 등의 경쾌한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속에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강성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어갈 새 세대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맹세가 무도회장에 새차게 끓어났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경축무도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힘찬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조국해방과 당창건이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펼쳐갈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조직된 우리 당의 또 다른 천출악단인 청봉악단은 독특한 성격융합의 안상분과 금관악기위주의 경음악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특색있는 우리 식의 경음악단이며 악단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는 황제산예술단의 명예대교있는데 맞게 이러한 전략적의도를 수행하는데서 나팔수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아하게 될 새로운 예술창조집단의 이름을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와 직결시켜 청봉악단으로 맡아주시고 악단의 음악장르와 편성, 연주형식과 소리형상수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며 걸음걸음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모란봉중창조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던 가수들이 망라되어었다. 노래로부터 시작되고 노래속에 전진하여온 조선혁명군 노래와 함께 승리떨쳐나가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상히 높아진 우리 인민의 지향과 패투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문화정서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천만의 심장을 드높는 혁명열, 투쟁

열로 더욱 불라게 하고 예술부문의 체계와 부진을 불사르는 척후대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새로운 경음악단의 조직을 선포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당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과 인민들의 심장에 새겨진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맥동치게 하는것을 사상사업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일대 공세를 가지게 되었는데 맞게 이러한 전략적의도를 수행하는데서 나팔수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아하게 될 새로운 예술창조집단의 이름을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와 직결시켜 청봉악단으로 맡아주시고 악단의 음악장르와 편성, 연주형식과 소리형상수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며 걸음걸음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모란봉중창조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던 가수들이 망라되어었다. 노래로부터 시작되고 노래속에 전진하여온 조선혁명군 노래와 함께 승리떨쳐나가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상히 높아진 우리 인민의 지향과 패투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문화정서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천만의 심장을 드높는 혁명열, 투쟁

이 준 과업을 비상히 높은 실력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해가며 당의 평도이래 내날이 발전하는 주체예술의 눈부신 발전면모를 더욱 뚜렷이 파시해가고있다. 당의 주체적문화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사회주의문화예술건설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해나가는 길에서 이름없는 모란봉악단과 함께 또 하나의 믿음직한 예술선구자부대를 가지게 된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청봉악단은 사상의 척후대, 혁명의 나팔수, 사상적기수가 되어 당중앙이 의도한대로 백두산의 청신한 빛이 어그러있는 악단의 이름을 예술활동실현으로 빛내어나가며 주체적 인문학예술발전예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새로 조직된 청봉악단은 혁명적인 예술창작창조활동으로 악단을 백두의 용암처럼 끓어넘치는 청춘집단, 인민의 지향과 요구, 순결과 이타당어있는 진정한 인민의 예술단체,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세상에 떨쳐갈 국보적인 악단으로 예술부문을 선도해나갈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개신문 광장에서



#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영원할 것이다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각지에서 뜻깊게 경축

당의 령도하에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조선속국조국의 불길은 새겨져서 커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축하연설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진승세대의 승고한 조국수호정신을 이어 배우신대국의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전민군민의 혁명적열의가 전승절을 맞이한 한 나라 강산에 차고넘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의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여야 하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 굽어보시었다.

경건한 마음과 광장공원에 들이신 군중들은 주체조선의 승리전승의 장시자이며 필승불패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그들은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령할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로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감지 못해하며 수령영생의 대화화로 훌륭히 꾸려진 광장공원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였다.

인민군정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수도의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전승절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전승혁명사적관을 찾은 참관자들은 매일 두 제국주의 강적을 때려부시는 투지대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아버지수령님과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변천변승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였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과 애국헌신을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우리당의 승고한 뜻을 되새기며 인민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각지에 있는 령사들의 동상과 령사릉, 인민군렬사추모당, 령사묘를 찾아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 대해 경의를 표시하였다.

각지에서 전승절을 경축하는

공연들이 진행되었다.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체력교예 《달라기》, 《비행가》, 외국교예 《순님과 함께》 등 다채로운 교예종목들이 무대에 올라 열정을 맞는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강계광장에서는 자강도에 출연한, 도예출신전예 예술인들의 합동공연 《승리의 7.27》이 있었다.

공연 무대에는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남성중창 《조국보위의 노래》, 여성독창과 방창 《아무도 몰라》, 여성중창과 합창 《대고향의 정은 집》, 여성중창 《적들의 승리방아》를 비롯한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업적과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고 조국수호를 위한 전진민적항전을 펼쳐나신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격조 높여 구가하였다.

평양북도에출단 예술인들은 합창 《우리의 7.27》, 남성독

창 《전사의 노래》, 여성5중창 《가리리 배두산으로》, 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종목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승업적과 신군혁명업적을 높이 모시어 영웅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하리라는 것을 노래하였다.

세월은 멀리 흐르고 강산은 변하였지만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계속자들의 대오에 조국경사수호의 백룡을 더해 주며 전승세대의 승고한 넋과 위훈을 감명깊게 형성한 황해북도 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강원도, 함경남도의 예술인들도 공연무대를 펼치고 조국전쟁의 세시대를 펼쳐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새겨주었다.

각계층과 직영원들 비롯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전승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을 가졌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불비불아지는 전구마다에서 불사신의

기상으로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안아오는 로병들의 위훈담을 모듬침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꽃다발들과 건강식품, 보약 등을 가지고 전승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가정을 찾아가 영웅적위훈과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불러주며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보내어주시는 그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었다.

각지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백전백승의 빛나는 전승이 있고 불세출의 신군정병들이 장엄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어 배우신대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의 7.27만이 있다는 지로 신심과 락관을 안고 용겨온 무도회를 진행하였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온 나라 곳곳에 펼쳐진 경축행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군혁명무력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수행경사수호정신과 열렬한 조국애, 필승의 신심과 백전백승의 의지로 만세만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세대를 이어 계승되는 투쟁정신

열여덟의 애젊은 나이에 청년의 모든 희망과 행복을 위해 남기고 원수의 불구멍을 향하여 달려나간 육탄영웅 리수복.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던 자신에게 참다운 삶의 길,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 고마운 조국의 품이 목숨보다 귀중하기에 리수복영웅은 정춘의 더운 심장을 아낌없이 바쳤다.

적화침을 몸으로 막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그의 위훈도 값높은 것이지만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한 길에

추호의 주저나 동요를 모르고 서슴없이 뛰어드는 영웅적희생정신이야말로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재부이다.

하기에 리수복영웅의 모습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한 청춘의 모습으로 새겨져있는 것이며 수령경사수호, 조국수호의 길에서 20대의 리수복영웅이 되려는 것이 천만군민의 하나같은 지향이고 열망인 것이다.

김철주사범대학 학생이었던 공화국영웅 유영화동무

역시 리수복영웅이 지녔던 고결한 정신을 안고 살아온 선군시대 청년들중의 한 사람이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한복술 거기에 버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보이며 혁명동지들을 구원한 그를 선군시대 공화국영웅으로 높이 내세워주었다.

영생의 언덕에 오른 유영화영웅의 나이는 리수복영웅과 똑같은 열여덟이었다.

동시대인들은 아니지만 안고 살 정치는 같았기에 그들은 다같이 열여덟의 청춘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 끊임없이 흐르는 위훈의 별무리

위대한 전승의 갈피속에는 우리 나라의 첫 여성비행사 태신희영웅의 모습도 빛나고있다. 천대와 떨시안을 받으며 살아오던 화전민의 딸을 우리 나라의 첫 여성비행사, 공화국영웅으로 키워 주신 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이제날의 천덕꾸러기도 하늘의 영웅으로 내세워주는 태담의 품속에서 태신희영웅만이 아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조국이 기억하고 시대가 자랑하는 위훈의 별

로 빛나고있는 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웅조선의 예인들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신 조국광, 립설동무들도 그러한 별들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이 그대로 힘되고 용기가 되었기에 그들은 남자들도 힘겨워하는 비행훈련과 피를 아깝게 수행하고 선군조선의 첫 여성조종수출투기비행사로 자라날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당찬 비행모습을 몸소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의 장한 아들들이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전화의 영웅들이 지녔던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한 영웅조선의 선조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본다.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하늘에 새겨진 이어 흐르는 위훈의 별무리들.

본사기자 승철진

우리 조국의 영원한 전승의 날인 7.27을 맞고보면 이 땅에 격동의 메아리가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의 구절이 굽어보시었다.

경건한 마음과 광장공원에 들이신 군중들은 주체조선의 승리전승의 장시자이며 필승불패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그들은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그 군복에 갖는 가슴뜨거운 사연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바로 몇몇 전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승절경축행사와 관련한 뜻깊은 가르치시를 주시였다.

다음에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전승로병들에게 전승시기에 입었던 것과 같은 군복을 만들어 주어야 그들이 군복을 입고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전승로병들에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입었던 것과 같은 군

복을 해당 군종별로 해입으면 그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전승로병대표들이 전승시기와 같은 군복을 입고 훈장까지 달고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면 전승가 더 이채롭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들이 원수님께 일군들은 감격에 목메였다.

로병군복제작과제를 맡은 피복생산자들도 가슴을 세차게 들먹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친 승리의 장은 나라들에 전승로병들이 있지만 우리 로병들처럼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는 긍지높고 행복한 로병들이 또 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유정한 불빛공복원이 되고 번쩍이는 군복단추가 되고 빛나는 전승이 된다면 같은, 전화의

나날의 것과 똑같은 군복을 받아안은 로병들의 주름진 두볼에도 뜨거움이 흘러내렸다.

화회에 불리고 피에 젖은 어제날의 군복차림이 몸에 꼭대인 우리 로병들이 떨쳐입은 새 군복.

정령 그것은 우리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에 《위대한 전대 예 경의를 드리다》라고 불멸의 진위를 새기셨듯이 자기 한복을 가슴에 내대고 싸운 조국수호전의 용사

스스로 환영의 물결을 이루고 전진하던 축하를 보내는 평양 시민들의 뜨거운 눈빛도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린 로병들에 대한 새 세대들의 다함없는 경의이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라,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이여,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여!

그대들의 뜻 우리 후대들이 꽃피어 계속하리니,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세대와 년대를 넘어 변함없이 빛나리!

온 나라 강산이, 전세 군대와

## 전우들은 늘 곁에 있다

사리원해운사업소

의 의도와 시대의 요구에 비해 볼 때 거리가 멀었다.

그는 국가적명예나 기념일들에 식료품들을 비롯한 물자들을 마련하여가지고 찾아가는데 만족할것이지 아니라 전승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돌보아주는 것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 사업을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도록 교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할 때 단 상의 승고한 뜻을 출세 구원하자.)

초급당비서는 이 문제를 놓고 지면이 광명, 기사장 권혁상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마주하였다.

서로의 마음은 하나로 합쳐져

좋은 안들이 쏟아져내렸다.

여기서 중시한것이 일군들이 사업에서 거슬러 되는것이였다.

초급당비서가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였다. 그는 열이 바쁜 속에서도 전승로병들과 특류영예군인들을 가정을 자주 찾았다. 출퇴근길에서도 들리고 때로는 출장길에서 전화를 걸어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달아보고 대책을 세우곤 하였다.

전승로병들과 특류영예군인들의 가정에 들락는 물론 김장용담들도 충분히 보충해주었다.

연제간이 전승로병 겸비호로 인의 집에 들러 방바닥을 깔아보던 초급당일군은 구들에 붙어 잘 들지 않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 제때에 응대해주도록 하였다.

천천히보다 더 세심한 그 진정에 전승로병이 눈물을 뜨게 될 때마다 초급당비서는 이렇게 흔쾌히 말하곤 하였다.

《그저 전우들이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정성에 떠날들려 전승로병들과 특류영예군인들은 언제나 전승의 활력에 넘쳐 생활하고있다.

생사를 함께 하던 전우들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당일군들이여서 그들은 한속소로 말하곤 한다.

전우들은 늘 곁에 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복을 해당 군종별로 해입으면 그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전승로병대표들이 전승시기와 같은 군복을 입고 훈장까지 달고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면 전승가 더 이채롭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들이 원수님께 일군들은 감격에 목메였다.

로병군복제작과제를 맡은 피복생산자들도 가슴을 세차게 들먹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친 승리의 장은 나라들에 전승로병들이 있지만 우리 로병들처럼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는 긍지높고 행복한 로병들이 또 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유정한 불빛공복원이 되고 번쩍이는 군복단추가 되고 빛나는 전승이 된다면 같은, 전화의

들에게 그이께서 친히 표시하시는 가장 숭고한 경의였으며 영원한 승리의 모습으로 새 세대들에게 1950년대의 불굴의 정신을 넘겨 주기를 바라는 크나큰 믿음이였다.

위대한 그이 따라 조국과 인민은 우리의 로병들에게 가장 숭고하고 가장 뜨거운 경배를 드리고있다.

전승절마다 베풀어지는 로병들을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사령의 공명적인 로병대회와 경축행사도, 그때마다 펼쳐지는 방방곡곡의 노래춤도, 들썩이는 거리와 마을의 축하의 열성일도 위대한 승리자들에게 드리는 조국의 경배, 인민의 경배인 것이다.

신선과 텔레비전화면에서 제 4차 전국로병대회의 소식을 보도도 보는 마음도, 대회참가 보도도 오가는 수도의 거리에

본사기자 허명숙

본사기자 허명숙

본사기자 허명숙



본사기자 김호혁

본사기자 김호혁

본사기자 김호혁

제30차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임소식 진행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지닌 세계 여러 나라 학생소년들의 회합년차 회합인 제30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이 시작되었다.

임소식이 27일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제30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생을 열렬히 환영한다!》 등의 구호들이 임소식장에 나붙어있었다.

임소식에는 정영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제일동맹 강원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서 일군들, 우리 나라와 로씨야, 나이지리아, 브라질, 헝가리, 중국, 탄지니아, 파키스탄소년야영단

과 해외동포소년야영단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애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고있다.

신호나팔소리에 이어 취주악이 힘있게 울려 퍼지는 속에 야영기발이 게양되었다.

《국제친선야영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된 임소식에서는 축하발언과 보고가 있었다.

연설자들은 먼저 제30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에 참가한 야영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령, 미래사명에 떠맡들려 동맹동승 송도원에

세상에 들도 없는 아이들의 공진으로 훌륭히 임했던 야영소에서 야영생들이 건강한 몸으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기 바란다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이번 야영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학생소년들의 국제적회합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트론들이 있었다.

임소식에서는 야영생들의 분별행진이 있었다.

야영기간 우리 나라와 세계 각국의 학생소년들은 해양체육과 유희외로, 민족의 날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벌려서서 끝없는 사랑과 즐거움속에서 자신의 뉴레를 두리이 하게 필 것이다.

본사기자 김호혁

본사기자 김호혁

본사기자 김호혁

본사기자 김호혁

본사기자 김호혁

에리트농업 및 관개근로자

총동맹대표단 귀국

씨미모합데르 메즈 총동맹대표단 귀국

씨미모합데르 메즈 총동맹대표단 귀국

씨미모합데르 메즈 총동맹대표단 귀국

일본 오까야마현 일조우호대표단 귀국

일본 오까야마현 일조우호대표단이 27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지금으로부터 4년전 영예군인이 제가 어느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메일이었다는 영양서로들과 보약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인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들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

혁명의동지애의 회원입니다

는 날까지 그 고마운 사람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야 바로 저의 건강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을 기울여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장진 1동사무소의 일군들과 인민반장 리미송동무를 비롯한 고향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저의 집에 자주 찾아와 딸같은 넉넉한가, 부끄러운 생활필수품은 없는가를 알아보며 제가 혁명의 꽃을 피워갈 피워가도록 친절육의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고있습니다.

정말이지 동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사랑모두가 서로 들고 버려주신 새 조국은 혁명적동지애의 회원입니다.

력포구역 장진 1동 리 광철

본사기자 김호혁

본사기자 김호혁

본사기자 김호혁

본사기자 김호혁



